

2026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70.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

- 농식품 53.8억 달러, 농산업 1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1.4%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라면·과자·아이스크림·김치·딸기, 농기계·비료·펫푸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0.5억 달러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농식품(신선, 가공) +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 ** K-푸드+ 수출액: ('25.상) 6,765.7백만 달러 → ('26.상) 7,045.1백만 달러(4.1%↑)

K-푸드, 미국·중국은 물론 중동·중남미·유럽 등 유망시장까지 수출 증가

농식품(K-푸드)은 5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동(GCC, 25.2%↑)·중남미(19.5%↑)·유럽(EU+ 영국, 17.9%↑)·북미(11.0%↑)·중화권(9.5%↑) 순이었다.

- * 농식품 수출액: ('25.상) 5,126.0백만 달러 → ('26.상) 5,381.9백만 달러(5.0%↑)
-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중화권) 1,201.7백만 달러(9.5%↑), (북미) 1,144.9(11.0%↑), (아세안) 933.4(1.6%↑), (유럽) 498.0(17.9%↑), (중동) 228.6(25.2%↑), (중남미) 140.1(19.5%↑)

미국은 K-푸드 제1 수출시장이다. 라면(175.3백만 달러), 과자(150.1백만 달러), 김치(24.6백만 달러), 배(4.4백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0.4억 달러로, 상반기에 10억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중국은 라면의 수출 1위국(217.6백만 달러)이며, 전체 K-푸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하며 2위를 지켰다.

- * 미국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175.3백만 달러(24.4%↑), 과자 150.1(12.0%↑), 김치 24.6(12.9%↑), 배 4.4(155.2%↑)
- ** 중국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217.6백만 달러(34.9%↑), 조제품 기타 113.8(4.1%↑), 과자류 49.9(1.0%↑), 조제분유 18.4(12.5%↑)

중동 권역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물류 경색과 소비 위축 등으로 3월 수출이 1~2월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우회 경로 확보와 전쟁 특수효과 등으로 4월 이후 연초류, 건강 기능식품, 인삼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주요 권역 중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중동 수출액: ('25.상) 182.6백만 달러 → ('26.상) 228.6백만 달러(25.2%↑)
- ** 중동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연초류 178.4백만 달러(49.1%↑), 조제품 기타 3.6(67.4%↑), 인삼류 0.9(22.0%↑)

중남미 권역은 라면, 건강기능식품, 유자, 김치, 딸기 등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유럽 권역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라면, 과자, 소스류, 쌀가공식품 등의 가공식품과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닭고기(열처리 가공육)가 8배 이상 증가하였다.

- * 중남미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34.6백만 달러(150.9%↑), 조제품 기타 9.9(185.6%↑), 유자 415천 달러(387.2%↑), 김치 253(172.6%↑), 딸기 200(310.4%↑)
- ** 유럽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150.3백만 달러(47.5%↑), 과자류 21.5(31.8%↑), 소스류 17.5(17.2%↑), 쌀가공식품 14.8(17.4%↑), 닭고기 5.2(721.0%↑)

라면·스낵·음료와 함께 딸기·포도·배 등 신선 과일 수출도 높은 성장세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중 라면이 9.4억 달러를 달성하여 10억 달러 돌파 시기가 전년 대비 한 달 이상(9월 초 → 7월 중)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딸기, 포도, 배 등의 신선식품도 높은 수출 증가 실적을 보였다.

- *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935.4백만 달러(27.9%↑), 과자류 398.8(7.2%↑), 음료 353.1(3.1%↑), 쌀가공식품 149.8(7.9%↑), 아이스크림 70.5(7.7%↑)
- ** 주요 신선식품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딸기 60.7백만 달러(15.9%↑), 포도 18.1(27.5%↑), 배 8.0(62.3%↑)

아이스크림은 체로슈거, 비건 등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에 부응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참기름은 주요국 창고형 매장 입점과 함께 샐러드 드레싱이 인기를 얻으며 수출이 증가하였다.

- * 아이스크림 수출액: ('25.상) 65.5백만 달러 → ('26.상) 70.5백만 달러(7.7%↑)
- ** 참기름 수출액: ('25.상) 7.5백만 달러 → ('26.상) 8.4백만 달러(12.0%↑)
미국 참기름 수출액: ('25.상) 2.5백만 달러 → ('26.상) 3.3백만 달러(31.6%↑)

김치는 미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으로 언급되는 등 그 우수성을 공인받아 북미 권역에서만 전체 수출의 약 40%인 31백만 달러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신시장이인 중앙아시아(CIS) 수출도 전국 유통체인 입점 성공과 콜드체인 운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 * 김치 수출액: ('25.上) 83.3백만 달러 → ('26.上) 86.0백만 달러(3.2% ↑)
-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북미) 30.6백만 달러(15.3% ↑), (CIS) 507천 달러(32.2% ↑)

딸기는 지난해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병충해 관리 강화로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되었고, 포도는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 증가하면서 50% 이상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배는 작황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 * 딸기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싱가포르) 19.2백만 달러(26.1% ↑), (태국) 16.6(20.6 ↑)
- 포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대만) 9.2백만 달러(73.9% ↑), (싱가포르) 1.9(62.0 ↑)
- 배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미국) 4.4백만 달러(155.2% ↑), (베트남) 0.6(408.9 ↑)

참외는 일본(전체 수출의 66%)의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크고 비싼 멜론을 대체할 합리적인 가격의 미니멀 과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였다. 토마토는 일본(주 수출국)의 주요 검역 병해충이었던 토마토빨나방에 대한 현장 대응 안정화로 전년 대비 수출이 44.1% 증가하였다. 6월 중순부터 재배지 검사 없이 증명서 첨부만으로 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 성장도 예상된다.

- * 참외 수출액: ('25.上) 1,572천 달러 → ('26.上) 1,637천 달러(4.1% ↑)
- 일본 참외 수출액: ('25.上) 976천 달러 → ('26.上) 1,082천 달러(10.9% ↑)
- ** 토마토 수출액: ('25.上) 3.9백만 달러 → ('26.上) 4.6백만 달러(18.6% ↑)
- 일본 토마토 수출액: ('25.上) 1.1백만 달러 → ('26.上) 1.6백만 달러(44.1% ↑)

돼지고기(캔햄 포함)는 지난해 APEC 계기에 이루어진 싱가포르 제수산 한돈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청정 제주’, ‘제주산 흑돼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삼겹살을 비롯한 신선육이 1백만 달러 이상 수출되었다. 싱가포르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신선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까지 홍콩이 돼지고기 1위 수출국이었으나, 싱가포르 검역 타결로 싱가포르가 1위 수출국이 되었다.

- * 돼지고기 수출액: ('25.上) 18.5백만 달러 → ('26.上) 19.3백만 달러(4.4% ↑)
-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 ('25.上) 310천 달러 → ('26.上) 1,440천 달러(364.2% ↑)

한편,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출 성과 극대화를 위해 권역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가용 예산을 집중하면서 관계부처 협업 및 K-푸드 명예 홍보대사 등의 K-이니셔티브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도의 경우, 1억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주요 수출국의 대형 유통매장 입점과 박람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필리핀 등 신시장 내 유통망 개척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작년 검역협상이 타결된 중국으로 단감이 첫 수출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록 및 현지 실사, 바이어 확보 및 프리미엄 마케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업, 농기계·비료·동물약품이 시장다변화, 주력시장 회복으로 수출 증가

농산업은 1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비료,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확대되며 농산업 분야의 상반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 * 농산업 수출액: ('25.上) 1,639.7백만 달러 → ('26.上) 1,661.7백만 달러(1.4% ↑)
-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 (농기계) 706.3백만 달러(3.2% ↑), (비료) 254.1(14.4 ↑), (동물용의약품) 197.0(2.0 ↑), (농약) 487.4백만 달러(△4.1), (종자) 25.6(△6.1)

농기계는 북미 지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농비 부담 확대로 농기계 구매 수요가 일부 둔화되었으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3.2%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유럽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유럽 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공급을 강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 * 국가별 수출액(증감률, 전년동기대비): (美) 449.3백만 달러(△2.0%), (네덜란드) 45.7(65.7 ↑), (캐나다) 43.5백만 달러(95.4 ↑)

비료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통제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제 비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출 단가가 상승하였고, 인도·필리핀 등 신규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며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다.

-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인도) 48.2백만 달러(6,141.6% ↑), (필리핀) 31.7(666.2 ↑), (일본) 28.8(26.0 ↑)

동물용의약품은 부스틴(산유축진제) 공장 정상 가동 이후 생산·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북중미·유럽·동남아 등 주요 거래처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 * 부스틴 생산 공장(LG화학)은 2025년 2월 공장 화재 이후 2026년 2월부터 정상화
- ** 국가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美) 31.9백만 달러(337.3% ↑), (폴란드) 13.3(38.7 ↑), (베트남) 11.6(7.3 ↑)

한편, 농약·종자·스마트팜 등 일부 품목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비관세장벽 등 대외 변수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해외 인·허가 지원, 현지 마케팅 확대,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수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무역변수에도 상반기 K-푸드+ 수출실적이 성장세를 보인 만큼, 하반기에 더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주력·신규 유망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생산부터 물류, 마케팅까지의 수출 지원 전반에 접목하고, 식품 규제 및 인증, 짝퉁 K-푸드 유통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와 지원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상반기(1.1.~6.30.) K-푸드+ 수출 실적(6월말 잠정치 기준)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책임자	과 장	남현중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상훈 (044-201-2472)



붙임

2026년 상반기(1.1.~6.30.) K-푸드+ 수출 실적 (6월말 잠정치 기준)

(단위: 백만불, %)

구 분	'25년 전체	'26년 누적 (1.1.-6.30.)	전년 동기대비
K-푸드+ (총계, A+B)	13,627.8	7,045.1	4.1
농식품(계, A)	10,394.4	5,381.9	5.0
가공식품	8,831.3	4,667.8	5.8
-라면	1,520.9	935.4	27.9
-과자	759.3	398.8	7.2
-음료	656.7	353.1	3.1
-쌀가공식품	277.9	149.8	7.9
신선식품	1,563.1	714.1	△0.0
-인삼류	264.0	102.8	△21.6
-김치	164.4	86.0	3.2
-딸기	72.0	60.7	15.9
-배	58.5	8.0	62.3
-포도	85.7	18.1	27.5
-파프리카	46.5	20.9	△12.6
농산업(계, B)	3,233.4	1,663.2	1.4
농기자재	2,818.7	1,473.4	2.2
-농기계	1,367.3	706.3	3.2
-비료	447.7	254.1	14.4
-농약	946.3	487.4	△4.1
-종자	57.4	25.6	△6.1
스마트팜	109.9	38.7	△27.3
동물용의약품	334.3	197.0	2.0
펫푸드	160.5	80.8	1.0
해외농업기반시설	-	7.5	순증
식품기자재	163.4	59.0	△10.0

*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은 6월 잠정치, 스마트팜·식품기자재는 5월 확정치